

# IFS 국가 정책 제언

## 한국-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2.0: 인재·기술·안보의 통합

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손인주 교수

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형진 객원연구원

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제근 교수

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민혜 선임연구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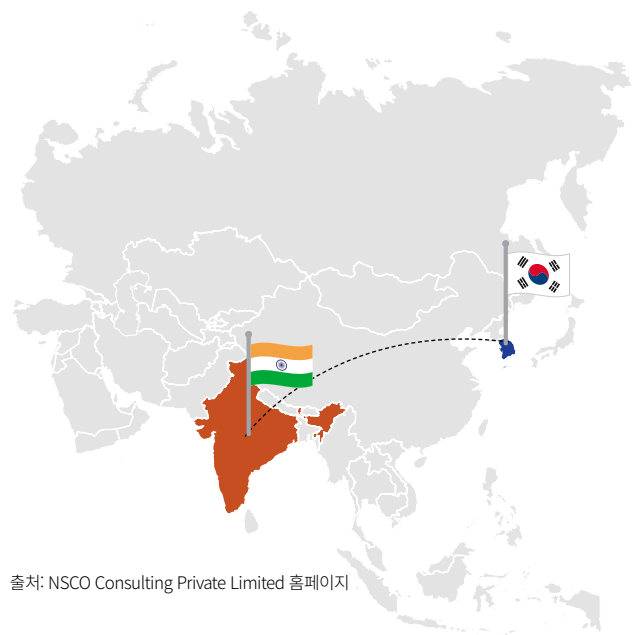
# 1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-인도 파트너십 2.0

## 한국과 인도가 당면한 전략적 리스크

- 분절화된 세계 질서와 미·중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-인도 전략적 불확실성 심화. 협력 잠재력 대비 실제 협력은 제한적이며 관계 전환 필요성 제기. '트럼프 2.0'발 미-인도 관계 가변성은 한국 전략적 가치 재평가 유도. 인도는 미국·유럽·일본·캐나다 등과의 FTA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,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 모색. 한국은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나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제조 기술 역량 보유, 인도 경제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전략적 가치 보유
- 모디 정부, 중국 외교노선에 전략적 불신. 중국 '중국몽'은 중국 중심 아시아 단극질서 지향, 인도는 다극적 아시아 질서 선호 → 전략 목표 상충. 인도-중국 국경 분쟁 지속. 카슈미르·라다크 지역 장기 군사적 긴장, 2020년 갈완 계곡 유혈 충돌 발생. 양국 관계는 제한적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편의적 공존 성격을 보임. 중국은 인도의 핵심 안보 도전 요인으로 지속 인식
- 지난 10여 년간 미-인도 협력은 인태 질서 핵심축으로 공고화. 인도는 미국의 자국 부상 지원을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. 미국·인도·일본·호주 Quad 중심 경제·안보·첨단기술 협력 확대
- 최근 무역 갈등 및 거러적 외교 성향 강화로 관계 불확실성 증대. 보호무역 강화와 군사적 무력 사용으로 대변되는 '트럼프 2.0' 외교가 인도의 '다각적 연대(Multi-alignment)' 전략 가속화
- 인도 지정학·지경학 리스크 심화로 회복탄력성 확보 필요 증대.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할 잠재적 파트너로 부상 중

## 한-인도 전략적 연대의 필요성

- 보편적 가치기반 국가이익 수렴
  - 민주주의·시장경제 보편 가치 공유에 따른 전략적 이익 수렴 및 협력 필요성 증대
  -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이자 인태지역 거점 인도와 연대를 통한 한국외교 지평 확장
  - 삼성·현대·기아·LG·포스코·한화 등 주요 기업 대규모 직접 투자로 양국 경제적 연계 심화. 민간중심 협력은 정부 간 협력보다 장기·구조적 관계 형성 기반
- 정상외교 통한 '한-인도 파트너십 2.0' 가속화
  - 2026년 상반기 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민방문 추진 통해 양국 관계 격상 전기 마련
  - 정상 간 신뢰기반 과학기술 협력, 인적 자본 결합, 경제안보 등 핵심 과제 실행력 확보
  - 인도를 단순 시장이 아닌 장기 전략 파트너로 재정의하고, 한국도 특정 기술 제공국으로 한정되는 협력 프레임을 넘어 '한-인도 파트너십 2.0'으로 격상할 필요 있음



출처: NSCO Consulting Private Limited 홈페이지



# 3 단계적 실행 중심 3대 전략



## 전략 1: 한-인도 인재 동맹

-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한-인도 고등교육 협력 네트워크 조성
  - 한국-인도 대표 대학 공동학위제 및 교환 프로그램 신설 통한 양국 최우수 인재 유인 및 공동연구 역량 강화
  - 교육-연구-산업 연계 프로그램 통한 과학기술 및 지역 전문 인재 공동 양성
  - 단순 학위 취득을 넘어 대학-연구소 공동 연구와 산업 현장 실습 결합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 지향
- 미래 전략 자산으로서 '융합형 인재' 육성
  - 첨단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병행, 상대국 이해 기반 지역학 전문 인력 육성 체계 마련
  - 한반도 및 아시아 전문가 집단 양성 통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대규모 경제 투자 결정 뒷받침 지식 인프라 확충
- 비자·언어·경력 경로 등 인재이동 관련 제도 개선 필요

## 전략 2: 과학기술 기반 역량 사슬 구축

- 공급망 참여를 넘어선 '공동개발(Co-development)'로의 패러다임 전환
  - 하부구조 부품 공급망 기여를 넘어 기술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함께하는 전략적 역량 사슬로 진화
  - 일방향 '기술 이전'에서 양방향 '공동개발 및 소유(Co-ownership)' 체계로 전환 추진
- 미래 핵심 전략 기술 중심의 협력 고도화
  - 글로벌 기술 패권 핵심인 인공지능(AI), 반도체, 첨단 소재, 양자 정보 기술 분야 최우선 전략 협력 분야 선정
  - 국가 간 기술 표준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동맹 강화
-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한 '전략적 인센티브' 설계
  - 정부 주도 마중물 펀드 조성, 양국 민간 투자자 공동투자 유도 제도적 인센티브(세제 혜택, 보조금 등) 제공
- 산·학·연 연계형 '글로벌 지식 생태계' 조성
  - 대학-연구소-기업 유기적 연결, 기초연구부터 제품화까지 클러스터 기반 협력망 구축
  - 협력 성과 지식재산(IP) 공동관리·보호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적 보호장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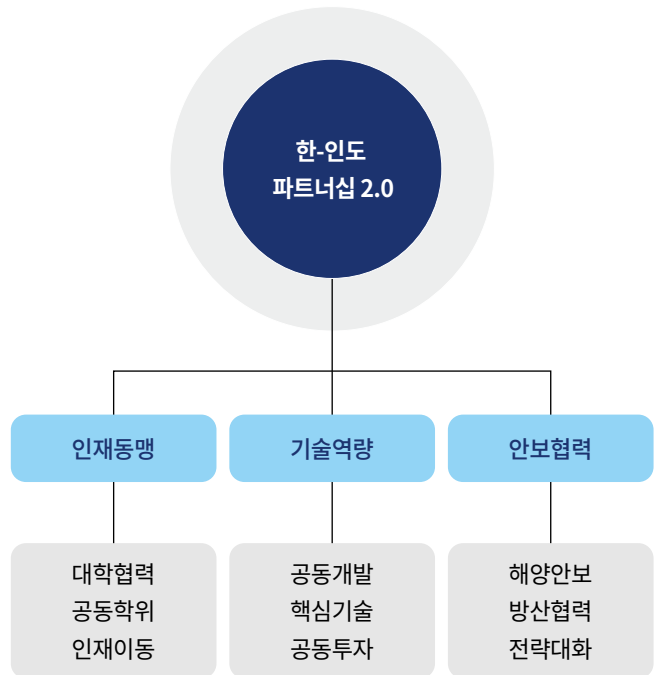
# 3 단계적 실행 중심 3대 전략

## 전략 3: 안보-기술 연계 협력

- 기술 패권 경쟁 하 '안보-기술 복합 협력' 모델 구축
  - 기술 경쟁력과 국가안보가 직결되는 정세 대응, 첨단 기술·외교·안보 결합 통합 협력 체계 가동
  -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신뢰구축을 통한 양국관계 질적 도약
  - 사이버 보안 및 민·군 이중용도(Dual-use) 핵심기술 공동연구 및 표준화 협력 확대
- 인도-태평양 해양 안보 및 방산 파트너십 강화
  - 인태지역 해상교통로(SLOC) 안전보장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해양안보 공조 확대
  - 잠수함, 수상함,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해상 운송수단 공동개발
  - 방산·해양기술 공동개발 및 전략산업 협력기반 확대
- 전략적 소통채널 다각화 및 정례화
  - 상호 신뢰 제고 위해 1.5트랙 및 2.0트랙 중심 양자·소다자 협의체 정기 개최
  - 외교·안보·기술 정책 연계를 위한 정부·학계·산업계 간 정책 협의채널 구축

- 글로벌 사우스 공동진출 및 영향력 확대
  - 서남아시아·동아프리카 등 인도 전략 영향권 역내 개발사업 공동투자 모색
  - 인도 자본·현지 네트워크와 한국 제조역량·인프라 경험 결합 '한-인도 공동 원조/투자 모델' 구축
- 협력 리스크 관리 및 단계적 접근 필요
  - 인도 기술 자립 성향 및 'Make in India' 정책에 따른 협력 제약 가능성 존재
  - Jugaad(힌디어로 '관습에서 벗어난 간편하고 창의적인 해결책'을 의미) 기반 저비용 기술개발역량 고려한 단계적·선별적 협력 접근 필요

### 한-인도 파트너십 2.0



# 4 결론



## ‘한-인도 파트너십 2.0’을 향한 인재·기술·안보 통합 전략

- 협력 잠재력 대비 전략 전환 필요
  - ‘트럼프 2.0’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는 한-인도 양국에 단순 경제 파트너를 넘어선 ‘전략적 연대’ 요구
- 거래적 접근에서 구조적 연대로 전환
  - 무역·투자 중심 단기 ‘거래’ 프레임 탈피,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가치사슬 전주기 공유 ‘역량·인재 사슬’ 구축 핵심 과제
  - 미래기술과 인적자본 공동소유(Co-ownership) 기반 ‘기술·인재·안보 복합체’로 진화 필요

## 통합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

- 학계·산업계·정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— 실행가능성 기준 단기·중기·장기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적 추진 필요
  - 인재동맹, 역량사슬 구축, 안보-기술 협력을 관통하는 장기 전략 마련 및 단계적 추진
- 미·중 경쟁 구조 변화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
  - ‘트럼프 2.0’ 기간 및 이후 미·중 관계 전개 방향을 반영한 한-인도 협력 전략 설계
- 초기 단계에서는 인재교류 및 공동연구 중심 협력부터 추진하고, 중장기적으로 기술 공동개발 및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